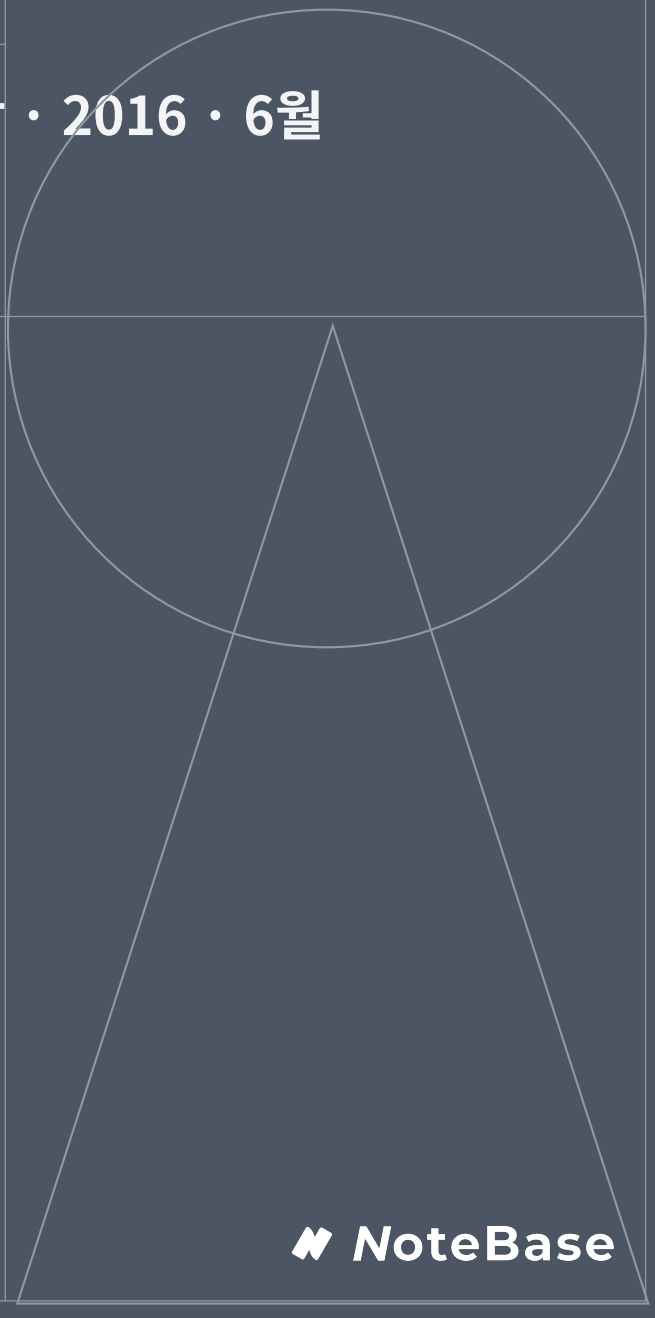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16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16 · 6월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16 · 6월

문 1. 다음 중 적시생산방식(JIT)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풀시스템 (pull system)

② 칸반(kanban)에 의한 생산통제

③ 생산평준화

④ 소품종 대량생산체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JIT 시스템의 핵심 특징인 풀 방식, 칸반 통제, 생산평준화와 전통적 대량생산체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JIT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 생산하여 재고를 최소화하는 생산방식이다.
풀 시스템은 후공정의 수요가 앞공정의 생산을 끌어가는 방식이다.
칸반은 후공정의 필요량을 신호로 전달하여 생산과 이동을 통제하는 도구이다.
생산평준화는 생산량과 품목 구성을 고르게 하여 공정의 변동과 낭비를 줄이는 방식이다.
소품종 대량생산은 표준화된 소수 품목을 대량으로 밀어내는 푸시형 대량생산 논리에 가깝다.

선지별 해설

① O: JIT는 후공정이 필요한 시점과 수량에 맞춰 앞공정이 생산하는 풀 시스템을 기본 원리로 한다.
② O: JIT는 칸반을 사용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이동할지 신호로 통제하므로 생산통제 수단으로 맞다.
③ O: JIT는 수요 변동을 완화하고 공정 부하를 안정시키기 위해 생산평준화를 중시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이다. JIT는 재고를 줄이기 위해 품목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또는 소로트 생산체제에 가깝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효율적 생산'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JIT와 대량생산을 같은 계열로 오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JIT의 핵심은 긴 생산라인으로 한 품목을 많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재고를 줄이면서 후공정 수요에 맞춰 흐름을 맞추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JIT 문제가 나오면 먼저 재고 최소화, 후공정 인출, 칸반, 생산평준화가 보이는지 확인하면 된다. 반대로 소품종 대량생산, 푸시 시스템, 과잉재고처럼 전통적 대량생산의 키워드가 나오면 JIT의 특징이 아닌 경우가 많다.

암기 포인트

JIT는 풀·칸반·평준화, 대량생산은 푸시·대량·재고 축적이다.

NoteBase

문 2. 다음 중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의 이표율과 채권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채권가격은 액면가와 같다.

② 채권의 이표율이 채권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채권가격은 액면가보다 낮다.

③ 채권의 구입 가격은 채권보유로부터 얻어지는 현금흐름을 이자율로 할인한 것과 같다.

④ 만기수익률은 보통 약속수익률이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표율, 채권수익률, 만기수익률의 관계와 그에 따른 채권가격의 방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표율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약정된 표면금리이고, 채권수익률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므로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 역할을 한다.
만기수익률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때의 수익률로, 채권가격은 미래 현금흐름을 이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따라서 이표율과 수익률이 같으면 채권은 액면가로 거래되고, 이표율이 수익률보다 높으면 채권은 액면가보다 높게 거래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표율과 채권수익률이 같으면 쿠폰이 시장이 요구하는 수익률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채권가격은 액면가와 같다.
② X: 틀린 부분은 "액면가보다 낮다"이다. 이표율이 채권수익률보다 높으면 시장금리보다 높은 쿠폰을 주는 채권이므로 가격은 액면가보다 높다.
③ O: 채권의 구입 가격은 쿠폰이자와 만기상환액처럼 채권보유에서 얻는 미래 현금흐름을 요구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같다.
④ O: 만기수익률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때 실현되는 수익률 개념으로, 채무불이행이 없다는 전제에서는 보통 약속수익률로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원리를 놓치면 ②처럼 방향을 거꾸로 판단하기 쉽다. 이표율이 높다는 말만 보고 수익률도 높아져 가격이 떨어진다고 섞어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채권 문제는 먼저 이표율과 시장수익률을 비교한 뒤 가격 방향을 본다. 이표율 > 수익률이면 프리미엄채권이라 액면가 초과, 이표율 = 수익률이면 액면가, 이표율 < 수익률이면 할인채권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채권가격은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이고, 이표율이 수익률보다 높으면 프리미엄채권이 된다.

NoteBase

문 3. 수요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전문가 그룹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델파이법은 대표적인 정량적(quantitative) 예측기법이다.

② 종속변수가 독립변수를 설명하는 능력은 결정계수의 크기로 측정한다.

③ 단순이동평균법(simple moving average method)에서 이동평균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최근의 추세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④ 인과형 예측모형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회귀분석을 들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예측의 정성적·정량적 기법, 결정계수의 의미, 이동평균의 반응성, 인과형 예측모형의 대표 기법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델파이법은 전문가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렴하는 정성적 예측기법이다. 결정계수 R^2는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변동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나타낸다. 단순이동평균법은 기간이 길수록 평활화 효과가 커져 최근 변화에 둔감해진다. 인과형 예측모형은 변수 간 인과관계를 이용하며 대표 기법으로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델파이법은 전문가 집단의 판단을 구조적으로 모아 예측하는 방법이므로 정성적 예측기법이다. 틀린 표현은 '정량적'이다. 올바르게는 '대표적인 정성적 예측기법'이다.
2번 X: 결정계수는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뜻한다. 틀린 표현은 '종속변수가 독립변수를 설명하는 능력'이다. 올바르게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능력'이다.
3번 X: 단순이동평균법은 이동평균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최근 값의 영향이 희석되어 추세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틀린 표현은 '민감하게 반응'이다. 올바르게는 '둔감하게 반응' 또는 '덜 민감하게 반응'이다.
4번 O: 인과형 예측모형은 수요와 관련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예측하며, 대표적 기법으로 회귀분석을 든다.

오답 포인트

예측기법 문제는 정성적·정량적의 구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설명 방향, 기간 증가에 따른 민감도 변화처럼 방향을 뒤집는 표현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법이 전문가 판단형인지 자료분석형인지 구분한다. 다음으로 지표는 누가 누구를 설명하는지 방향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은 기간이 길수록 평활화가 커져 최근 변화에 둔감해진다는 점을 적용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델파이법은 정성적, 결정계수 R^2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 설명력, 이동평균 기간 증가는 민감도 감소, 인과형 예측은 회귀분석이다.

NoteBase

문 4. 한 투자자는 두 가지 투자대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앞으로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제 상황별 발생 확률과 각 상황별 투자대안의 성과(순이익)가 표와 같을 때, 기대가치기준으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완전정보의 가치는 얼마인가?

대안 \ 경제 상황	호황	불황
A1	200만원	−20만원
A2	150만원	30만원
발생 확률	0.3	0.7

① 15만원

② 20만원

③ 25만원

④ 30만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기대가치 기준으로 정보가 없을 때의 최적 대안을 고른 뒤, 완전정보가 있을 때의 기대가치와 비교하여 완전정보의 가치 *EVPI*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주어진 값: 호황 확률은 0.3, 불황 확률은 0.7이다. A1의 성과는 호황 200만원, 불황 -20만원이고 A2의 성과는 호황 150만원, 불황 30만원이다.
- 구해야 할 값: 경제 상황에 대한 완전정보의 가치이다.
- 주의할 조건: 먼저 정보가 없을 때의 최대 기대가치를 구하고, 그다음 완전정보가 있을 때의 기대가치를 구해 차감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EVPI = EVwPI - (EV(대안))

이 공식은 완전정보가 있을 때 추가로 얻는 기대이익만 따로 계산하는 식이다. 따라서 각 대안의 기대가치를 먼저 구한 뒤, 상황별로 더 유리한 대안을 고를 수 있을 때의 기대가치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정보가 없을 때 A1의 기대가치는 $0.3 \times 200 + 0.7 \times (-20) = 60 - 14 = 46$만원이다.
2. 정보가 없을 때 A2의 기대가치는 $0.3 \times 150 + 0.7 \times 30 = 45 + 21 = 66$만원이다. 따라서 정보가 없을 때의 최적 대안은 A2이고 최대 기대가치는 66만원이다.
3. 완전정보가 있으면 호황에서는 A1의 200만원, 불황에서는 A2의 30만원을 선택한다. 따라서 완전정보 하 기대가치는 $0.3 \times 200 + 0.7 \times 30 = 60 + 21 = 81$만원이다.
4. 완전정보의 가치는 $81 - 66 = 15$만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계산 결과 완전정보의 가치는 15만원이므로 옳다.

② X
- 완전정보 하 기대가치 81만원에서 정보가 없을 때의 최대 기대가치 66만원을 빼면 15만원이므로 20만원은 산술적으로 맞지 않는다.
- 틀린 표현은 '완전정보의 가치는 20만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완전정보의 가치는 15만원이다'이다.

③ X
- 완전정보의 가치는 상태별 최적 성과를 반영한 기대가치 81만원과 기존 최대 기대가치 66만원의 차이여야 하므로 25만원은 정의 자체에 맞지 않는다.
- 틀린 표현은 '완전정보의 가치는 25만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완전정보의 가치는 15만원이다'이다.

④ X
- 30만원은 어떤 한 상태의 유리한 성과만 따로 보거나 기대가치 계산을 생략했을 때 고르기 쉬운 값이다. 완전정보가치는 반드시 확률을 반영한 기대가치 차이로 계산해야 한다.
- 틀린 표현은 '완전정보의 가치는 30만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완전정보의 가치는 15만원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완전정보가치를 각 대안의 기대가치 차이로 오해하거나, 상태별 최대 성과를 고른 뒤 기존 최대 기대가치를 빼는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기 쉽다. 특히 A1의 불황 성과가 -20만원이라는 점을 놓치면 기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사결정나무의 기대가치 문제는 '각 대안의 기대가치 계산 → 정보가 없을 때 최적 대안 선택 → 완전정보가 있으면 상태별 최고 성과 선택 → 두 기대가치의 차이 계산'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완전정보가치는 '완전정보 하 기대가치 - 현재 최대 기대가치'이다.

NoteBase

문 5. 프로젝트 일정관리 방법론인 PERT/CPM에서 주공정경로(critical path)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짧은 경로를 주공정경로라고 한다.

② 주공정경로는 여유시간(slack time)이 0보다 큰 활동들을 연결한 경로이다.

③ 주공정경로상의 활동들은 일정 부분 지연이 되더라도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여유시간이 0인 활동들이 많을수록 일정관리가 더욱 어려워진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PERT/CPM에서 주공정경로의 의미와 여유시간 0인 활동의 관리상 함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공정경로는 프로젝트 완료시간을 결정하는 최장 경로이며, 이 경로상의 활동은 여유시간이 0이다.
여유시간이 0인 활동이 많을수록 지연을 흡수할 완충 여지가 적은 활동이 많다는 뜻이므로 일정통제가 더 어려워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가장 짧은 경로"이다. 주공정경로는 프로젝트를 끝내는 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 즉 전체 완료시간을 결정하는 최장 경로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여유시간이 0보다 큰 활동들"이다. 주공정경로는 여유시간이 0인 활동들을 연결한 경로이다.
여유시간이 0보다 크면 일정 지연을 일부 흡수할 수 있으므로 주공정경로가 아니다.

③ X
틀린 표현은 "일정 부분 지연이 되더라도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이다. 주공정경로상의 활동은 여유시간이 0이므로 조금만 지연되어도 전체 프로젝트 완료시점이 그만큼 늦어진다.

④ O
여유시간이 0인 활동이 많다는 것은 일정 지연을 허용하지 않는 핵심 활동이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관리자가 집중해서 통제해야 할 활동이 늘어나므로 일정관리가 더 어려워진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주공정경로를 "중요한 경로" 정도로만 외우면 ①의 "가장 짧은 경로"와 ②의 "여유시간이 0보다 큰 활동"에 속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은 주공정경로가 최장 경로이면서 여유시간 0의 활동들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공정경로 문제는 먼저 "최장 경로인가"와 "여유시간이 0인가"를 확인하면 된다. 이 두 조건에 어긋나는 선지는 바로 제거할 수 있고, 주공정경로 활동의 지연은 전체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주공정경로 = 최장 경로 = 여유시간 0 = 지연 시 전체 일정 지연이다.

NoteBase

문 6. 고객 주문 및 수요에 대한 예측 정보가 소매업체, 도매업체, 물류센터, 제조업체, (원료)공급자 방향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연이나 왜곡현상이 발생하여 과잉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시장실패

② 인지부조화

③ 집단사고

④ 채찍효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급사슬에서 수요정보가 상류로 갈수록 과장되어 전달되는 채찍 효과의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장실패는 시장기능만으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인지부조화는 태도·신념·행동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심리적 불편이 생기는 현상이다.
집단사고는 집단의 만장일치 압력이 비판적 판단을 약화시키는 의사결정 왜곡이다.
채찍 효과는 최종수요의 작은 변동이 공급사슬 상류로 갈수록 크게 증폭되어 재고와 주문 변동을 키우는 현상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시장실패는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비대칭 등으로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이다. 이 문제처럼 수요예측 정보가 공급사슬 단계마다 왜곡되어 재고가 불안정해지는 현상과는 다르다. 틀린 표현은 '시장실패'이며, 올바르게는 '채찍 효과'이다.

② X
인지부조화는 개인이 서로 충돌하는 인지나 행동을 가질 때 느끼는 심리적 긴장을 뜻한다. 공급사슬 정보 왜곡과 주문 증폭은 조직 간 운영현상이지 개인의 심리현상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인지부조화'이며, 올바르게는 '채찍 효과'이다.

③ X
집단사고는 집단이 합의만 중시하여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의사결정 오류이다. 문제의 상황은 회의 의사결정의 왜곡이 아니라 수요정보 전달 과정의 증폭 현상이다. 틀린 표현은 '집단사고'이며, 올바르게는 '채찍 효과'이다.

④ O
채찍 효과는 소매단의 실제 수요 변화보다 더 큰 주문 변동이 도매, 제조, 공급자 쪽으로 갈수록 확대되는 현상이다. 그 결과 과잉재고, 품절, 생산계획 불안정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문제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선지 ①, ②, ③은 각각 경제학, 조직행동론, 집단의사결정 개념이라 용어만 보고 익숙한 것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발문의 핵심 단서는 '수요예측 정보', '상류 방향 전달', '지연이나 왜곡', '과잉재고'이므로 공급사슬관리 개념을 찾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최종고객 수요정보가 유통단계를 거치며 상류로 전달될수록 변동폭이 커지고 재고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하면 채찍 효과로 판단한다. 개인 심리, 집단 의사결정, 시장 전체의 자원배분 실패와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채찍 효과는 작은 수요변동이 상류로 갈수록 크게 증폭되는 공급사슬 왜곡현상이다.

NoteBase

문 7. 파생상품(derivative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로 만기일에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행사하여 이익을 본다.

② 옵션매입자에게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옵션매도자는 옵션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며 거래 요구시 거래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만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미국식 옵션(American option)이라 한다.

④ 선물의 계약가치는 선물가격이기 때문에 선물매입계약 체결시 매입자는 매도자에게 선물가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풋옵션, 미국식 옵션, 선물계약의 권리·의무와 계약가치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풋옵션은 기초자산을 정해진 행사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이다. 옵션은 매입자에게 권리가 있고 매도자에게 의무가 있는 비대칭 계약이다. 미국식 옵션은 만기 이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선물은 장래 일정 시점에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기로 한 의무계약이며, 계약 체결 시점의 계약가치는 원칙적으로 0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O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높은 행사가격으로 팔 수 있어 이익이 발생한다.

② O
옵션매입자는 권리를 사는 쪽이고, 옵션매도자는 그 권리가 행사될 때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옵션의 기본 구조를 정확히 설명한 선지이다.

③ O
만기일 이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은 미국식 옵션이다. 반대로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은 유럽식 옵션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선물의 계약가치는 선물가격'과 '선물매입계약 체결시 매입자는 매도자에게 선물가격을 지불'이라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선물가격은 장래 결제에 적용되는 약정가격이고, 선물계약의 가치는 체결 시점에 원칙적으로 0이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선물가격 자체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증거금을 예치할 뿐이다.

오답 포인트

4번은 선물가격과 선물계약의 가치를 일부러 섞어 놓은 함정이다. 옵션은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권리를 사지만, 선물은 체결 시 계약가치가 0에서 시작하는 의무계약이라는 점을 혼동하면 잘못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파생상품 문제에서는 먼저 권리계약인지 의무계약인지 구분한다. 그다음 가격과 가치를 분리해 본다. 옵션의 프리미엄, 행사가격, 선물가격, 계약가치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선지에서 이를 같은 것으로 묶으면 오답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옵션은 매입자 권리·매도자 의무, 미국식은 만기 전 행사 가능, 선물은 약정가격이 있을 뿐 체결 시 계약가치는 0이다.

NoteBase

문 8. 다음 동기부여 이론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하위단계의 욕구가 채워지면 순차적으로 상위단계의 욕구를 채우려 한다고 가정한다.

②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에서 동기유발 요인은 급여, 작업조건, 고용안정 등 작업환경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동기부여는 기대, 보상의 가치, 수단성의 3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④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은 개인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평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요 동기부여 이론의 핵심 내용과 대표 키워드를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매슬로우: 욕구계층이론 —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고 본다.
허즈버그: 2요인이론 — 동기요인은 성취·인정·책임·성장처럼 직무 내용과 관련되고, 위생요인은 급여·작업조건·고용안정처럼 불만을 줄이는 직무 환경 요인이다.
브룸: 기대이론 — 노력하면 성과가 난다는 기대,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수단성, 그 보상의 매력인 유의성에 따라 동기가 형성된다.
에덤스: 공정성이론 — 자신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공정성을 지각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동기 수준이 달라진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O
매슬로우는 욕구가 위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상위 욕구가 동기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선지의 '하위단계의 욕구가 채워지면 순차적으로 상위단계의 욕구를 채우려 한다'는 진술은 욕구계층이론의 기본 설명에 부합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동기유발 요인은 급여, 작업조건, 고용안정 등 작업환경과 관련된 것'이라는 연결이다. 급여, 작업조건, 고용안정은 허즈버그의 동기요인이 아니라 위생요인이다. 올바르게는 '동기요인은 성취감, 인정, 책임, 성장, 직무 그 자체와 관련되고, 급여·작업조건·고용안정은 위생요인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③ O
브룸의 기대이론은 기대, 수단성, 유의성의 3요소로 설명된다. 선지의 '기대, 보상의 가치, 수단성'에서 보상의 가치는 유의성을 뜻하므로 내용상 맞는 설명이다.

④ O
에덤스의 공정성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투입과 산출을 평가하고, 이를 타인과의 비율 비교를 통해 공정한지 판단한다는 이론이다. 선지는 투입과 산출 평가에 기초를 둔다는 점을 말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허즈버그 문항에서 가장 자주 뒤바뀌는 부분은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의 구분이다. 급여, 복리후생, 작업조건, 고용안정은 만족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요인이 아니라 불만을 예방하는 위생요인인데, 이를 '동기유발 요인'으로 바꾸어 놓아 헷갈리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기부여 이론 문제는 학자 이름을 보면 바로 대표 연결어를 대입해 판단한다. 매슬로우는 욕구 단계, 허즈버그는 동기요인 대 위생요인, 브룸은 기대·수단성·유의성, 에덤스는 투입-산출의 공정성 비교로 연결하면 빠르게 정오를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허즈버그는 직무내용이 동기요인, 직무환경이 위생요인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9. 포터(Michael Porter)는 기업의 환경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위협이 되는 요소를 5가지로 파악하여 다섯 가지의 힘(5 forces)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혁신의 위협(threat of innovation)

② 기존 기업간의 경쟁(threat of rivalry)

③ 대체재의 위협(threat of substitutes)

④ 신규 진입자의 위협(threat of entry)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요인과 각 구성요소를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포터의 5가지 힘은 산업 내 수익성과 경쟁구조를 결정하는 다섯 압력을 정리한 틀이다.
다섯 요소는 기존 기업 간 경쟁강도, 신규 진입자의 위협, 대체재의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이다.
핵심은 기업 내부 혁신 여부가 아니라 산업 바깥과 안에서 작용하는 경쟁압력을 보는 데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포터의 5가지 힘에는 혁신의 위협이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혁신의 위협'이다. 올바르게는 신규 진입자의 위협, 대체재의 위협, 구매자 교섭력, 공급자 교섭력, 기존 기업 간 경쟁강도를 본다.
② O: 기존 기업 간 경쟁은 포터의 5가지 힘 가운데 하나이다. 산업 안에서 기존 경쟁자들이 가격, 품질, 마케팅 등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는지를 뜻한다.
③ O: 대체재의 위협은 포터의 5가지 힘 가운데 하나이다.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가 같은 욕구를 대신 충족하면 기존 산업의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④ O: 신규 진입자의 위협도 포터의 5가지 힘 가운데 하나이다.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오면 공급이 늘고 기존 기업의 수익성이 압박받을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의 '혁신'은 경영학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라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포터의 5가지 힘은 산업구조 분석 틀이지 혁신관리 항목 목록이 아니다. 혁신을 신규 진입이나 대체재 출현과 혼동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포터 문제가 나오면 먼저 다섯 항목을 고정 목록으로 떠올리면 된다. 기존 경쟁, 신규 진입, 대체재, 구매자 교섭력, 공급자 교섭력 중 하나인지 확인하고, 혁신·기술변화·내부역량 같은 표현이 나오면 포터의 5가지 힘 밖의 요소일 가능성이 크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포터 5력은 기존경쟁-신규진입-대체재-구매자-공급자이다.

NoteBase

문 10. 내부수익률(IR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 정의된다.

② 투자안으로부터 얻어지게 될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투자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③ 한 가지 투자안에서 복수의 값이 얻어질 수도 있다.

④ 상호배타적인 투자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순현재가치 방법과 항상 동일한 결론을 가져다 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내부수익률의 정의와 순현재가치법·수익성지수법과의 차이, 그리고 비정상적 현금흐름에서의 복수 IRR 가능성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부수익률은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순현재가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고, 수익성지수는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상호배타적 투자안에서는 규모 차이와 현금흐름 시점 차이 때문에 IRR과 순현재가치법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이 설명은 내부수익률이 아니라 순현재가치의 정의이다. 틀린 부분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다. 올바르게는 "내부수익률은 그 차이인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② X. 이 설명은 내부수익률이 아니라 수익성지수의 계산식이다. 틀린 부분은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투자액으로 나누어 구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내부수익률은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합이 최초투자액과 같아지게 하는 할인율을 찾는 방식으로 구한다"이다.

③ O. 현금흐름의 부호가 한 번만 바뀌지 않고 여러 번 바뀌는 비정상적 투자안에서는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둘 이상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한 투자안에서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얻어질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④ X. 상호배타적 투자안에서는 내부수익률법과 순현재가치법이 항상 같은 결론을 주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항상 동일한 결론"이다. 올바르게는 "상호배타적 투자안에서는 투자규모나 현금흐름 타이밍이 다르면 두 방법의 우선순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순현재가치법을 우선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순현재가치 정의와 ②의 수익성지수 정의를 IRR 정의와 바꿔 놓은 점이 대표적 함정이다. 또 ④처럼 독립적 투자안에서는 대체로 같은 채택 여부가 나오더라도 상호배타적 투자안에서는 순위 충돌이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IRR 문제는 먼저 "값"인지 "할인율"인지부터 구분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현금유입 현재가치에서 유출 현재가치를 뺀 값이면 순현재가치이고, 현재가치를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면 수익성지수이며,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면 내부수익률이다. 복수 IRR은 현금흐름 부호가 여러 번 바뀌는 경우로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NPV는 값, PI는 비율, IRR은 할인율이며, 비정상적 현금흐름에서는 IRR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NoteBase

문 11. 다음 중 경력관리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확보 및 배분

② 효과적인 임금제도의 설계

③ 이직 방지 및 유능한 후계자 양성

④ 종업원의 성취동기 유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력관리의 목적과 보상관리의 기능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경력관리는 조직의 인력수요와 개인의 경력욕구를 연결하여 배치, 개발, 유지, 승계계획을 체계화하는 활동이다. 보상관리는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 등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활동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경력관리는 필요한 인재를 적절한 시점에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확보 및 배분은 경력관리의 대표적 목적에 해당한다.
2번 X: 틀린 부분은 "임금제도의 설계"이다. 효과적인 임금제도의 설계는 경력관리보다 보상관리의 기능에 해당한다. 경력관리의 목적이라고 하려면 경력개발 기회의 제공, 경력경로 설계, 적절한 이동배치처럼 경력형성과 직접 연결된 내용이어야 한다.
3번 O: 경력관리로 승진경로와 육성계획이 분명해지면 유능한 인력의 이직을 줄이고 후계자를 계획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 이직 방지 및 후계자 양성은 경력관리의 중요한 목적이다.
4번 O: 경력관리로 개인이 앞으로의 성장경로를 인식하면 성취욕구와 조직몰입이 높아질 수 있다. 종업원의 성취동기 유발도 경력관리의 목적에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인사관리의 여러 기능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경력관리와 보상관리를 같은 범주로 오인하기 쉽다. 특히 "임금"이 들어가면 경력개발이 아니라 보상관리 영역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배치, 육성, 승계, 유지처럼 사람의 경력흐름을 다루면 경력관리로 본다. 선지가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처럼 금전적 보상체계를 다루면 보상관리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경력관리는 배치·개발·유지·승계이고, 임금설계는 보상관리이다.

NoteBase

문 12. ㈜서울은 만기 1년, 액면금액 100,000원인 무이표채(zero coupon bond)를 발행하려 한다. 무이표채의 만기수익률(YTM)이 연 10%라고 할 때, 동 채권 발행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인가?

① 82,645원

② 90,909원

③ 99,000원

④ 110,000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만기 1년 무이표채의 현재가치를 만기수익률로 할인해 발행 시 조달금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만기 1년, 액면금액 100,000원, 만기수익률 10%
구해야 할 값: 발행 시 조달할 수 있는 현재가치
주의할 조건: 무이표채이므로 중간 이자지급이 없고, 만기에 액면금액 100,000원만 상환된다.

사용할 공식

무이표채 가격은 $P = \frac{F}{(1+r)^n}$ 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무이표채는 만기 시점의 단일 현금흐름만 있으므로 액면금액을 만기수익률로 1년 할인한 값이 현재 발행가격이 된다.

계산 과정

1. 만기 현금흐름은 100,000원이다.
2. 할인율은 연 10%, 기간은 1년이므로 할인계수는 $(1 + 0.10)^1 = 1.10$ 이다.
3. 따라서 현재가치는 $P = \frac{100,000}{1.10} = 90,909.09$ 이다.
4. 원 단위로 보면 약 90,909원이므로 정답 후보는 2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82,645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무이표채를 1년이 아니라 더 긴 기간으로 중복 할인한 값에 가깝다. 틀린 표현은 발행가를 과도하게 할인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1년만 할인해 90,909원이 된다.
② O: $\frac{100,000}{1.10} = 90,909.09$ 이므로 90,909원이 맞다. 만기에 100,000원을 지급할 채권을 연 10%로 1년 할인한 현재가치와 일치한다.
③ X: 99,0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10% 수익률을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1% 수준으로 잘못 할인할 때 나오는 값에 가깝다. 틀린 표현은 할인율 적용이 부족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10%를 적용해 90,909원이 된다.
④ X: 110,000원은 계산 결과와 반대 방향이다. 이는 현재가치를 구해야 하는데 100,000원에 10%를 더해 미래가치처럼 계산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할인 대신 가산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100,000원을 나누어 90,909원을 구한다.

오답 포인트

무이표채는 이자지급이 없으므로 액면금액을 그대로 더하거나 빼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혼동해 ④처럼 100,000원에 10%를 더하거나, 기간을 잘못 적용해 과도하게 할인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채권 계산형 문제는 현금흐름이 언제 발생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무이표채이면 액면금액 1회만 남긴다. 그다음 현재가치=미래가치÷(1+r)^n 순서로 할인해 선지와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무이표채는 쿠폰이 없으므로 가격은 액면금액을 만기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NoteBase

문 13. 가격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침투가격(market-penetration pricing)은 단기이익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실현하려는 경우에 쓰인다.

② 묶음가격(product bundled pricing)은 자사가 제공하는 여러 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묶어서 하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상품들이 상호 대체재인 경우에 효과적이다.

③ 단수가격(odd pricing)은 현재의 화폐단위보다 조금 낮춘 가격 책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낮게 책정하였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④ 종속제품에 대한 가격결정(captive-product pricing)은 면도기와 면도날처럼 주제품과 종속제품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한 가격결정 방식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격전략별 적용 상황, 특히 시장침투가격, 묶음가격, 단수가격, 종속제품가격의 차이를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장침투가격은 낮은 도입가격으로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높인 뒤 장기이익을 노리는 전략이다.
묶음가격은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제시해 하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이며, 보완재 성격이나 결합구매 유인이 클 때 효과가 커진다.
단수가격은 10,000원 대신 9,900원처럼 기준 숫자보다 조금 낮게 제시해 더 저렴하게 느끼게 하는 심리적 가격전략이다.
종속제품가격은 주제품과 함께 반복 구매되는 종속제품의 관계를 고려해 가격을 설계하는 전략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시장침투가격은 초기에 낮은 가격으로 수요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이후 규모의 경제나 고객기반 확대를 통해 장기이익을 실현하려는 전략이므로 설명이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상품들이 상호 대체재인 경우에 효과적'이라는 표현이다. 묶음가격은 보통 함께 사용할 때 효용이 커지는 보완재나 서비스 패키지처럼 결합판매 효과가 큰 경우에 유리하다. 올바르게는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를 묶어 하나의 가격으로 판매하며, 상호 보완적이거나 묶음 구매 유인이 큰 경우에 효과적이다'이다.
③ O: 단수가격은 10,000원보다 9,900원처럼 약간 낮게 제시해 소비자가 가격을 더 낮게 인식하게 만드는 심리적 가격전략이므로 설명이 맞다.
④ O: 종속제품가격은 면도기와 면도날처럼 주제품과 종속제품이 함께 사용되는 관계를 전제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설명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묶음가격과 종속제품가격은 모두 둘 이상의 제품 관계를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묶음가격은 여러 제품을 하나의 가격으로 함께 파는 전략이고, 종속제품가격은 주제품을 산 뒤 종속제품을 반복 구매하게 되는 구조를 이용하는 전략이라는 점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둘 이상의 제품이 함께 제시되면 먼저 하나의 세트 가격으로 파는지, 아니면 주제품 구매 후 종속제품을 계속 사게 되는 구조인지를 구분한다. 전자는 묶음가격이고 후자는 종속제품가격이다.

암기 포인트

묶음가격은 세트판매, 종속제품가격은 본체-소모품 관계, 단수가격은 9,900원 효과이다.

NoteBase

문 14. 전사적품질경영(TQ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TQM은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중요시한다.

② TQM은 경영 전략이라기보다 서비스 품질관리기법이다.

③ TQM은 결과지향적인 경영방식으로 완성품의 검사를 강조한다.

④ TQM은 단기적인 품질혁신 프로그램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전사적품질경영의 핵심 성격이 전사적 참여, 고객지향, 프로세스 중심, 지속적 개선에 있다는 점을 묻는다.

핵심 개념

TQM은 조직 전체가 고객만족과 품질향상을 위해 전 부문과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경영철학이자 관리방식이다. 핵심 구별점은 사후검사 중심이 아니라 예방과 과정관리 중심이라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TQM은 품질을 한 번에 완성된 결과로 보지 않고 업무 프로세스를 계속 개선해 불량 원인을 줄이는 접근이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경영 전략이라기보다 서비스 품질관리기법'이다. TQM은 서비스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단순 기법보다 넓은 전사적 경영철학이자 전략적 관리방식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결과지향적'과 '완성품의 검사를 강조'이다. TQM은 완성품 사후검사보다 공정 전반의 예방적 관리와 과정개선을 중시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단기적인 품질혁신 프로그램'이다. TQM은 일회성 단기 캠페인이 아니라 조직문화 차원의 장기적·지속적 품질개선 활동이다.

오답 포인트

품질관리를 최종검사나 단기 캠페인으로 이해하면 ③과 ④에 끌리기 쉽다. TQM은 검사기법이 아니라 전사적 품질문화와 지속개선 체계라는 점이 함정의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품질 관련 선지에서 전사적 참여, 고객지향, 예방, 프로세스 개선, 지속적 개선이 나오면 TQM의 방향과 맞는다. 반대로 최종검사 중심, 결과만 중시, 단기 프로그램, 특정 부문 한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TQM과 거리가 멀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TQM은 전사적 참여와 지속적 프로세스 개선, 사후검사보다 예방 중심이다.

NoteBase

문 15. 금융시장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분산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을 없앨 수 있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없앨 수 없다.

② 두 자산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분산투자효과가 크다.

③ 헤지(hedge)가 모든 위험을 없애고자 하는 전략이라면, 보험(insurance)은 하방위험을 없애고자 하는 전략이다.

④ 헤지대상과 헤지수단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헤지(hedge)효과가 크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구분, 분산투자 효과, 헤지와 보험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 변동에서 오는 위험이어서 분산투자로 없애기 어렵다.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기업이나 종목 고유의 위험이어서 분산투자로 줄일 수 있다.
헤지는 반대 포지션을 잡아 가격변동의 상방과 하방 노출을 함께 줄이는 전략이다.
보험은 비용을 지불하고 하방손실만 제한하면서 상방이익 가능성은 남겨 두는 전략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분산투자로 제거되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이고, 체계적 위험은 남는다.
틀린 표현은 '체계적 위험을 없앨 수 있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없앨 수 없다'이다.
올바르게는 '분산투자를 통해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지만, 체계적 위험은 없애기 어렵다'이다.

② X
두 자산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함께 움직이므로 분산투자효과는 작아진다.
틀린 표현은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분산투자효과가 크다'이다.
올바르게는 '상관관계가 낮거나 음의 상관일수록 분산투자효과가 커진다'이다.

③ O
헤지는 위험 노출 전체를 상쇄하려는 전략이고, 보험은 손실이 나는 하방만 제한하면서 이익 가능성은 남겨 두는 전략이다.
따라서 두 기법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한 선지이다.

④ X
헤지대상과 헤지수단이 비슷하게 움직여야 가격변동이 서로 상쇄되어 헤지 효과가 커진다.
틀린 표현은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헤지 효과가 크다'이다.
올바르게는 '헤지대상과 헤지수단 간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헤지 효과가 커진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뒤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②와 ④는 모두 상관관계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 함정이다. ③은 헤지가 상하방을 함께 막고 보험이 하방만 막는다는 차이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산투자 문제는 먼저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수단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상관관계 문제는 분산투자는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유리하고, 헤지는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방향을 나누어 판단하면 된다. 헤지와 보험은 상방이익까지 포기하는지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분산은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고, 분산효과는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커지며, 헤지는 상하방을 함께 막고 보험은 하방만 막는다.

NoteBase

문 16. (주)서울은 서울에 빌딩 건설을 추진하여 영화관, 커피숍, 옷가게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주)서울은 당장 대지구입에 100억원, 건물설계에 50억원을 지출해야 하고, 공사비로 1년, 2년 후 각각 100억원씩 지출해야 한다. 현금유입으로는 1년 후 분양계약금 150억원, 2년 후 분양잔금으로 300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위험수준을 고려할 때 조달금리는 10%이다. 이 사업의 추진타당성과 그 판단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사업추진이 타당하다. 사업의 순현재가치(NPV)가 약 60.7억원이다.

② 사업추진이 타당하다. 사업의 순현재가치가 약 34.3억원이다.

③ 사업추진이 타당하다. 사업의 순현재가치가 약 371.9억원이다.

④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사업의 순현재가치가 약 -21.9억원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위험조정 할인율 10%를 적용해 사업의 순현재가치(NPV)를 계산하고, NPV가 0보다 크면 투자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현재 대지구입비 100억원, 건물설계비 50억원이 즉시 지출된다.
- 1년 후 공사비 100억원이 지출되고 분양계약금 150억원이 유입된다.
- 2년 후 공사비 100억원이 지출되고 분양잔금 300억원이 유입된다.
- 조달금리는 10%이다.

구해야 할 값:
- 사업의 순현재가치와 추진 타당성이다.

주의할 조건:
- 현재 시점 지출은 할인하지 않는다.
- 1년 후와 2년 후의 순현금흐름을 각각 현재가치로 할인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순현재가치는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합계에서 현재 투자액을 차감해 구한다.

$$NPV = -C_0 + \sum_{t=1}^{n} \frac{CF_t}{(1+r)^t}$$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이 문제는 시점별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이 주어져 있고,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10%로 사업가치를 현재시점으로 환산해야 하므로 NPV 기준이 직접 적용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16 · 6월

계산 과정

1. 현재 시점 순지출은 대지구입비와 설계비를 합한 150억원이다.
2. 1년 후 순현금흐름은 $150 - 100 = 50$억원, 2년 후 순현금흐름은 $300 - 100 = 200$억원이다.
3.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NPV = -150 + \frac{50}{1.1} + \frac{200}{1.1^2}$

$= -150 + 45.45 + 165.29 = 60.74$

이므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약 60.7억원이다. NPV가 0보다 크므로 사업추진이 타당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계산 결과 NPV는 약 60.7억원이므로 제시된 수치와 타당성 판단이 모두 맞다.

② X

- 34.3억원은 1년 후와 2년 후의 공사비 100억원씩을 할인하지 않고 단순히 현재가치 계산에서 빠뜨리거나 현재가치 반영을 불완전하게 했을 때 나오는 오답 유형에 가깝다.
- 틀린 표현은 "순현재가치가 약 34.3억원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순현재가치는 약 60.7억원이다"이다.

③ X

- NPV는 미래 순유입 전체를 단순 합산하는 값이 아니라 미래 순현금흐름을 할인한 뒤 현재 투자액을 차감한 값이다. 371.9억원은 할인과 순유출 차감을 잘못 처리한 과대평가 오답이다.
- 틀린 표현은 "순현재가치가 약 371.9억원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순현재가치는 약 60.7억원이다"이다.

④ X

- NPV가 음수이면 사업을 포기해야 하지만, 실제 계산값은 +60.7억원 수준의 양수이므로 포기 판단이 성립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은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와 "순현재가치가 약 -21.9억원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사업추진이 타당하다"와 "순현재가치는 약 60.7억원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미래 현금유입만 할인하고 미래 공사비를 할인하지 않거나, 각 시점의 유입과 유출을 먼저 순현금흐름으로 묶지 않고 섞어서 계산하는 데 있다. 또 NPV는 총유입액이나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할인된 순현금흐름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면 ③, ④ 같은 선택지에 흔들리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산형 투자안 문제는 먼저 시점별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정리해 순현금흐름으로 바꾼 뒤,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마지막에 NPV의 부호로 타당성을 판단하면 된다. 즉시 발생하는 금액은 할인하지 않고 미래 금액만 할인한다.

암기 포인트

NPV는 "시점별 순현금흐름 작성 → 할인 → 합산 → 0과 비교"의 순서로 판단하는 값이다.

NoteBase

문 17. 설비배치의 유형 중 공정별 배치와 제품별 배치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제품별 배치는 다양한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② 공정별 배치는 제품별 배치에 비해 생산속도가 빠르며 생산설비의 효율성이 높다.

③ 특정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한 전용생산라인은 제품별 배치에 해당한다.

④ 공정별 배치는 제품의 공정 순서에 따라 일자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설비배치 유형 중 공정별 배치와 제품별 배치의 적용 상황, 생산방식, 라인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공정별 배치는 비슷한 기능의 설비를 공정별로 묶는 방식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다.
제품별 배치는 제품의 작업 순서에 맞춰 설비를 일렬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소품종 대량생산과 전용생산라인에 적합하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다양한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이다. 이는 공정별 배치의 특징이다. 제품별 배치는 표준화된 제품을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할 때 적합하다.
2번: X. 틀린 부분은 "공정별 배치는 제품별 배치에 비해 생산속도가 빠르며 생산설비의 효율성이 높다"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속도와 설비효율은 제품별 배치가 더 높다. 공정별 배치는 이동거리와 대기시간이 커져 속도와 효율이 떨어지기 쉽다.
3번: O. 특정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한 전용생산라인은 제품의 흐름에 맞춰 설비를 배열한 형태이므로 제품별 배치에 해당한다.
4번: X. 틀린 부분은 "공정별 배치는 제품의 공정 순서에 따라 일자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정 순서에 따라 일자형으로 배열되는 것은 제품별 배치의 특징이다. 공정별 배치는 기능별로 설비를 모아 배치하므로 직선 라인이 일반적이지 않다.

오답 포인트

다품종 소량과 소품종 대량을 서로 바꾸어 외우면 1번과 3번을 함께 흔들리게 된다. 또한 "공정 순서에 따라 일자형"이라는 표현은 제품별 배치의 전형적 키워드인데, 4번은 이를 공정별 배치에 붙여 혼동을 유도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배치문제는 먼저 생산품의 종류와 생산량을 본다. 다품종 소량이면 공정별 배치, 소품종 대량이거나 전용라인이면 제품별 배치로 판단한다. 이어서 설비가 제품 흐름대로 일렬인지, 기능별로 묶였는지를 확인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다품종 소량은 공정별 배치, 소품종 대량과 전용라인은 제품별 배치이다.

NoteBase

문 18. 원가(cost)를 경쟁우선순위(competitive priority)로 하는 제조업체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가지고 있다.

②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자들을 교차훈련시킨다.

③ 생산라인 자동화를 위한 투자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다.

④ 고객맞춤형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산운영의 경쟁우선순위 가운데 원가 우선 전략이 요구하는 생산 특성을 다른 우선순위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원가 우선은 낮은 비용으로 대량생산하는 능력을 중시하는 경쟁우선순위이다. 핵심 키워드는 표준화, 대량생산, 높은 설비이용률, 자동화이다.
유연성 우선은 제품 종류나 작업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중시한다. 핵심 키워드는 다품종, 소량생산, 교차훈련, 빠른 전환이다.
고객맞춤 우선은 고객별 요구에 맞춘 차별화와 주문대응을 중시한다. 핵심 키워드는 맞춤형, 다양성, 개별화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는 유연성 우선에 가까운 특징이다. 틀린 부분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이다. 원가 우선 제조업체는 올바르게는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체제를 가진다.
② X: 작업자 교차훈련은 여러 업무 전환에 대응하려는 유연성 확보 수단이다. 틀린 부분은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자들을 교차훈련시킨다"이다. 원가 우선 제조업체는 올바르게는 작업을 표준화하고 반복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중시한다.
③ O: 생산라인 자동화 투자는 단위당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표준화된 대량생산에 유리하므로 원가 우선 전략의 전형적 특징이다.
④ X: 고객맞춤형 제품 중심 생산은 개별 고객 요구 대응과 차별화에 초점이 있다. 틀린 부분은 "고객맞춤형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한다"이다. 원가 우선 제조업체는 올바르게는 고객맞춤보다 표준화된 주력제품을 효율적으로 대량생산한다.

오답 포인트

원가 우선과 유연성 우선을 함께 외우지 않으면 ①의 다품종 소량생산이나 ②의 교차훈련을 효율성 향상 수단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비용절감형 공장과 대응유연형 공장의 특징을 서로 바꿔 놓은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표준화, 대량생산, 자동화, 높은 설비이용률이 보이면 원가 우선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다품종 소량, 교차훈련, 맞춤형 생산이 보이면 유연성이나 차별화 쪽으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원가 우선은 표준화·대량생산·자동화이고, 유연성 우선은 다품종·교차훈련·맞춤대응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도매상의 형태 중 한정서비스상인 도매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전문품 도매상

② 브로커

③ 트럭 배달 도매상

④ 제조업자의 판매지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도매상의 유형 가운데 한정서비스상인 도매상과 완전서비스 도매상, 브로커, 제조업자 소유 도매조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정서비스상인 도매상은 상품 소유권을 가지고 매매하지만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지는 않는 상인 도매상이다. 핵심 키워드는 제한된 서비스, 정기 경로 판매, 직접 배달이다.
전문품 도매상은 특정 상품계열을 깊게 취급하는 완전서비스 상인 도매상이다. 핵심 키워드는 좁은 품목 범위, 전문성, 완전서비스이다.
브로커는 상품 소유권 없이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상이다. 핵심 키워드는 무소유권, 중개, 수수료이다.
제조업자의 판매지점은 제조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도매조직이다. 핵심 키워드는 제조업자 소유, 직영 판매, 회사 내부 유통조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전문품 도매상은 특정 제품군을 깊게 취급하는 도매상이지만 한정서비스상인 도매상은 아니다. 틀린 부분은 "전문품 도매상"이다. 전문품 도매상은 올바르게는 완전서비스 상인 도매상에 속한다.
② X: 브로커는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뿐 상품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브로커"이다. 브로커는 올바르게는 상인 도매상이 아니라 대리중개형 도매상에 해당한다.
③ O: 트럭 배달 도매상은 정해진 판매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판매와 배달을 함께 수행하는 한정서비스상인 도매상의 대표적 형태이다.
④ X: 제조업자의 판매지점은 제조업자가 직접 보유하고 운영하는 도매기구이다. 틀린 부분은 "제조업자의 판매지점"이다. 제조업자의 판매지점은 올바르게는 제조업자 소유의 도매조직이지 한정서비스상인 도매상이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전문품 도매상은 취급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이름만 보고 한정서비스상인 도매상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품목 범위의 제한과 서비스 기능의 제한을 서로 다른 기준인데도 같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매상 분류 문제는 먼저 소유권을 가지는지부터 본다. 그다음 상인 도매상이 맞다면 서비스 수준으로 완전서비스와 한정서비스를 나누고, 트럭 배달, 현금무배달, 직송 같은 유형이 보이면 한정서비스상인 도매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트럭 배달은 한정서비스, 전문품은 완전서비스, 브로커는 무소유권 중개, 판매지점은 제조업자 직영이다.

NoteBase

문 20. 관여도에 따른 소비자 구매행동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저관여 제품이고 제품특성 차이가 작을 때 소비자는 다양성(Variety-Seeking) 추구 구매 행동을 보인다.

② 고관여 제품이고 제품특성 차이가 클 때 소비자는 습관적(Habitual) 구매 행동을 보인다.

③ 저관여 제품이고 제품특성 차이가 클 때 소비자는 복잡한(Complex) 구매 행동을 보인다.

④ 고관여 제품이고 제품특성 차이가 작을 때 소비자는 부조화 감소(Dissonance-Reducing) 구매 행동을 보인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관여도와 제품특성 차이의 크기에 따라 소비자 구매행동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복잡한 구매행동은 고관여이면서 제품특성 차이가 큰 경우에 나타나는 행동이다.
부조화 감소 구매행동은 고관여이지만 제품특성 차이는 작은 경우에 나타나는 행동이다.
습관적 구매행동은 저관여이면서 제품특성 차이가 작은 경우에 나타나는 행동이다.
다양성 추구 구매행동은 저관여이면서 제품특성 차이가 큰 경우에 나타나는 행동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저관여 제품이고 제품특성 차이가 작을 때'가 틀린 표현이다. 이 경우는 다양성 추구가 아니라 습관적 구매행동에 해당한다. 다양성 추구 구매행동은 저관여이면서 제품특성 차이가 큰 경우에 나타난다.
② X: '고관여 제품이고 제품특성 차이가 클 때'가 틀린 표현이다. 이 경우는 습관적 구매행동이 아니라 복잡한 구매행동에 해당한다. 습관적 구매행동은 저관여이면서 제품특성 차이가 작은 경우에 나타난다.
③ X: '저관여 제품이고 제품특성 차이가 클 때'가 틀린 표현이다. 이 경우는 복잡한 구매행동이 아니라 다양성 추구 구매행동에 해당한다. 복잡한 구매행동은 고관여이면서 제품특성 차이가 큰 경우에 나타난다.
④ O: 고관여 제품인데 제품특성 차이가 작으면 구매 후 자신이 선택한 대안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커지므로 부조화 감소 구매행동으로 분류한다.

오답 포인트

관여도의 높고 낮음과 제품특성 차이의 크고 작음을 따로 외우지 않고 행동유형 이름만 기억하면 선지의 조합을 서로 뒤바꾼 함정에 걸리기 쉽다. 특히 ①의 다양성 추구와 ③의 복잡한 구매행동을 바꿔 넣은 표현이 대표적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관여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나누고, 다음으로 제품특성 차이가 큰지 작은지를 대입하면 된다. 고관여·차이 큼은 복잡형, 고관여·차이 작음은 부조화 감소형, 저관여·차이 작음은 습관형, 저관여·차이 큼은 다양성 추구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큰복, 고작부, 저작습, 저큰다의 네 칸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NoteBase